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두 초선의원의 다짐

10월31일 실시된 조계종 13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격 보경 두스님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두스님 모두 초선이라는 점과, 81명의 당선자 가운데 최연소자라는 점이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회에 임하는 소신이 뚜렷하다는 점이 관심을 끌게 한다.

초격스님은 25교구 봉선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스님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중회가 입법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회가 문종과 계과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21교구 송광사에서 출마해 당선된 보경스님은 초선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소신은 뚜렷하다. 중회의 종단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원 연수국장의 경협을 살려 승가교육 발전에도 이익을 담당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이들 두 스님은 현재 중회 내의 각 계파로부터 일원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받고 있지만 계속 거절하고 있다. 자칫 뜻도 퍼보지 못하고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걱정도 하나 들 쌓여가고 있다. 의지와 소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스님은 지금의 초발심을 반드시 지켜겠다고 자신과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스님의 이런 초발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배 중회위원들과 불자들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두스님의 중회에 임하는 초발심이 다른 스님들에게도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한명우 기자

“수행체계 바로 세우자” 여론 높아

“신앙형태·방법 혼재... 각 수행법 상호보완 필요”

선우논강·불교포럼서 잇따라 문제 제기

조계종이 금명간 '수행체계 연구실무위원회' 발족과 함께 수행교학 체계 확립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출·재가의 수행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논강'에서 고우스님(각화사 선원장)은 "한국불교 수행체계는 기초가 안돼 있다"며 현재의 수행형태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8면>

또 선우논강에 참석한 상당수 스님들도 △간화선 일변도의 수행

행법의 개선을 주장했다. 미산스님은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재, 초기단계의 수행체계 빈약, 출·재가자의 신앙체계 통일성과 차별성 부재, 여러 가지 신앙형태(기도, 주력, 사경 등)와 수행법의 혼재, 각 수행법의 가치와 상호보완성의 이해 부족 등 한국불교 수행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원 실상사 화림원(원감 재연)은 19일부터 시작되는 동안에서 '경전 읽기 결제'를 통해 수행체계의 기반을 세우겠다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전 읽기 결제'는 동안기 중 10주 동안 매주

“교단,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선원수좌회·계단위원회·강원교직자협 성명

전국선원수좌회, 전국강원교직자협의회, 조계종계단위원회가 6일 현 조계종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 종단은 승가구성원 전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수행과 교화에 일생을 바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무소유의 율장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승가구성원 안에 흐르고 있는 물질적, 세속적, 권력지향적인 흐름은 금강경의 계해, 권력권중 현상,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기득권층의 고착화, 삼보정재의 유실 및 사유화로 교단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무원과 총무원장에 대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지난 19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한 이래 총무원장은 과연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최근에 취임 총무원장의 비개혁적이고, 무원칙적인 일련의 인사정책은 그 도를 넘고 있어 중도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총회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3대 총회에서는 공평의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직능지 중회의 원 선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팔만대장경 경판 449장 손상

해인사 채광·통풍 문제있는 신 판가 철거 추진

72년 건립된 신 판가면판가 가 햇빛에 노출되고 경판전의 통풍 흐름이 바뀌면서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 경판 449장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합천 해인사는 8일 "최근 문화재청과 신 판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문가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

인사와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 협의결과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올해와 내년에 보수작업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인사 한 관계자는 "신판가에 보관된 경판이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현재 해인사는 신 판가 철거 및 경각각 내부 보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00년 문화재청 조사결과와 장경각 법보전과 수리과내 대장경판 보관대인 신판가에 보관중인 경판 5천여장 가운데 나비금음현상(268장), 비불림현상(151장), 길이균을 현상(30장)으로 총 449장이 손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해인사와 문화재청은 동사간고와 서사간고 경판과 법보전 및 수리과내의 경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72년 장경각 부근에 신 판가를 건립했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립 금강대 7일 준공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박정식)는 7일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대운동장에서 개교 및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천태종 도원종정, 원대 총무원장, 지하선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송파 관음종 총무원장, 중국 천태산 국경사키밍(하명) 방장, 일본 천태종 니시노가 요오코오 총무원장, 하순종 한나라당 불자회장, 윤창하 문화관광부 총무실장, 정문 천사대 총장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논산=고영배 기자

전통문화진흥국·문화재보존과학원 신설 등

불교계, 대선후보에 27항 요청

조계종이 문화부내 전통문화진흥국 신설, 불교문화재 보존과학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불교계 대선 후보 요청사항을 8일 발표했다.

요청사항은 문화분야 14개항, 사회 환경 복지 분야 9개항, 종교 간 협력성 관련 분야 4개 항 등 모두 27개 항이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은 법주사 동화사 직지사 등 11개 본사 주지 및 총무원 6개 부장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쌍문3일당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한나라당

13대 중앙총회 9일 개원
법전 중정 법어 내려

조계종 제13대 중앙총회가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갖고 23일까지 15일간 155회 정기중회 임정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은 중회 개원에 즈음해 "집학하면 법도를 잃고 사비에 얽매면 본심을 잃는다.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한다면 중도를 잃지 않을 것이며, 다름도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12월 17일 마감

불교계의 정령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이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문자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경북: 032)937-5679 강원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129 강원: 053)353-1196

넘고 싶은 건, 1m 63cm의 높이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입니다

몸의 장애는 조금 불편할 것일 뿐,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없는 나라 - 행복이 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오키 SK

사각위에 난 높이기가 금메달리스트의 흥득길